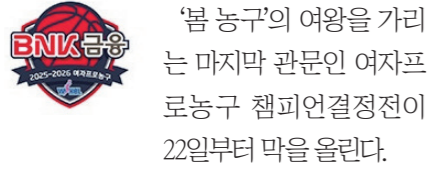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22일부터 막을 올린다. 청주 KB(왼쪽)와 용인 삼성생명(오른쪽)은 같은 날 청주체육관에서 1차전을 치른 뒤 24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최강 전력 vs 역전 명수... 여왕은 누구?

KB·삼성생명 챔피언전
22일부터 5전 3승제



‘봄 농구’의 여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인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22일부터 막을 올린다. 지난해 11월 대장정을 시작한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는 이제 청주 KB와 용인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KB와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 맞대결은 역대 4번째이며, 2020-2021시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삼성생명이 3승 2패로 승리하며 역대 최초 정규리그 4위 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양 팀은 22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1차전을 치른 뒤 24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이어간다.

시즌 전부터 우승 후보 KB

박지수·강이슬·허예은 트리오 다채로운 공격패턴 자유자재 상대 전적서도 5승 1패 압도

이후 용인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26일 오후 2시 30분 3차전, 28일 오후 7시 4차전을 진행하며 만약 4차전까지 우승팀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다시 청주로 돌아와 최후의 5차전을 벌인다. 2023-2024시즌 이후 2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KB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산 우리은행을 상대로 3연승 ‘싸늘이’를 거두며 여유롭게 챔피언결정전에 선착했다. KB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2021-2022시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3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시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

4강 뒤집기 매직 삼성생명

에이스 이해란 공격선봉 역할 베테랑 빅맨 배혜운 골밑 사수 신들린 숯감각 강유림 큰 기대

앞선다. 하지만 단기간의 승부는 예측 불허다. 삼성생명은 이미 4강 PO에서 ‘업셋’(하위 팀이 상위 팀을 꺾는 것)의 명수임을 재입증했다. 최근 10시즌 동안 WKBL 포스트시즌에서 발생한 6차례의 업셋 중 무려 4차례를 삼성생명이 일궈냈다. 이번 시즌에도 삼성생명은 정규리그 2위 부진 하나은행을 상대로 첫판을 내준 뒤 내리 3연승을 거두는 저력을 발휘하며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삼성생명의 공격 선봉에는 ‘에이스’ 이해란이 선다. 이해란은 전 경기(30경기)에 출전해 평균 17.4점(리그 2위), 7.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베테랑 빅맨 배혜운이 노련하게 골 밑을 지탱하고 있고, PO 4차전에서 20점을 몰아넣은 강유림의 숯 감각이 살아난 점도 고무적이다. **클 사진·연합뉴스**

LG 질주냐, 한화 재도약이나

지자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20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3연전을 펼친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놓고 다툰 두 팀은 올 시즌 초반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 LG는 12승 6패 승률 0.667로 선두 삼성 라이온즈에 0.5경기 차

3위를 달리고 있으나 한화는 8승 10패 승률 0.444로 공동 6위에 처져있다. 한화는 6연패를 기록했다가 최근 2연승하며 가까스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LG는 마무리 유영찬을 필두로 필승조 장현식, 우강훈, 김진성 등이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반면 한화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제구 난조로 무너지는 등 불행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웬 화이트의 부상 대체 선수로 영입한 오른손 외국인 투수 잭 쿠싱을 불펜으로

잠실서 시즌 첫 주중 맞대결 투수력 대결 일단 LG 앞서

보직 변경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문동주, 왕연정, 황준서 등 선발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LG는 송승기, 라클란 웰스, 요니 차리노스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송승기는 올 시즌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59의 특급 성적을 냈고, 아시아 쿼터 웰스는 3경기 평균자책점 2.12로 일반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펼친다. 차리노스도 최근 2경기에서 각각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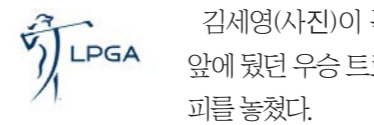


한화 문현빈이 16일 열린 2026 신한 SOL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홈을 밟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 앞 우승 농친 김세영

LA 챔피언십 17번홀 보기
임진희·그린과 공동 선두
연장서 그린에 우승 내줘

했으나 17번 홀(파3)에서 티샷이 빗겨 안으로 들어가는 불운 속에 통탄의 보기를 기록했다. 반면 그린은 13번 홀(파4)부터 16번 홀(파5)까지 4개 연속 버디 행진을 펼치며 김세영을 따라잡았다.



김세영(사진)이 눈앞에 뒤틀린 우승 트로피를 놓쳤다. 김세영은 20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엘카바예로 CC(파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총 상금 375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연장 승부 끝에 해나 그린(호주)에게 패해 임진희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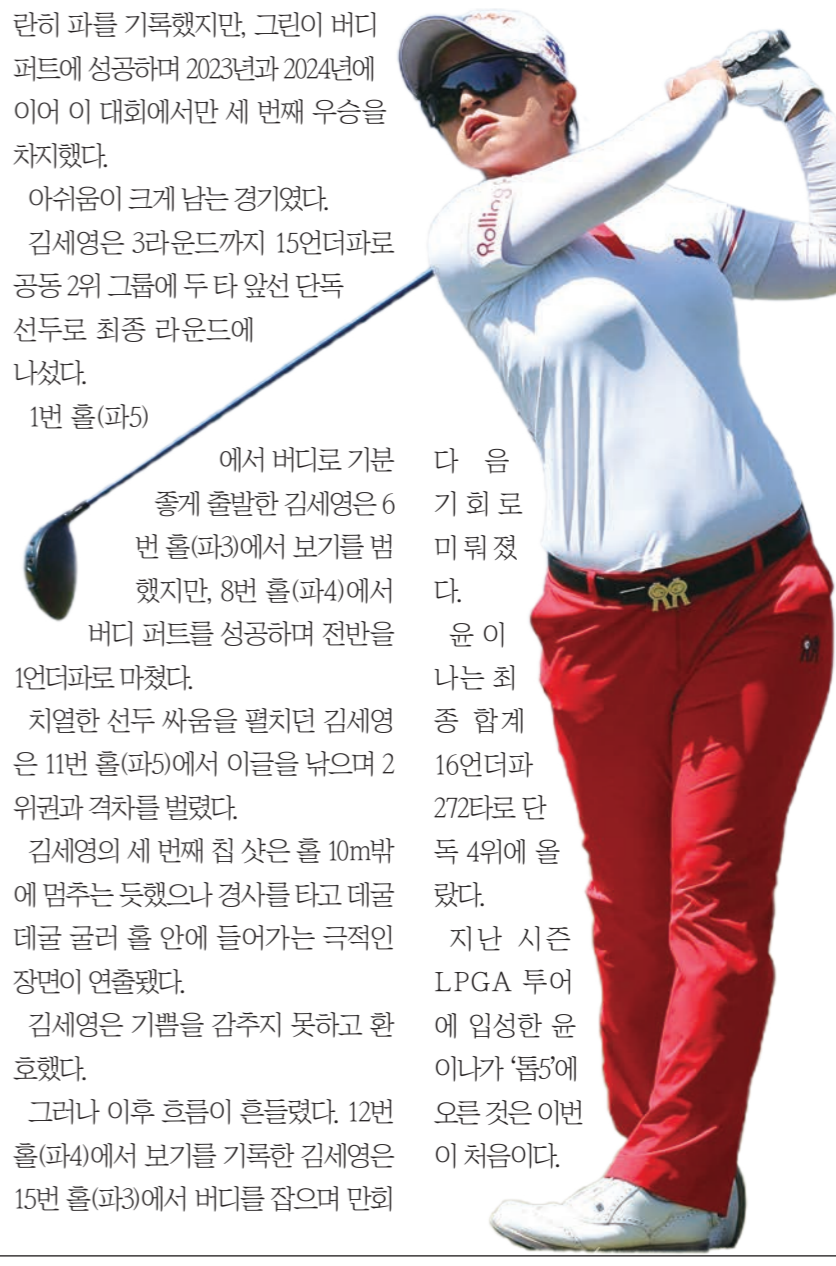
임진희는 17언더파로 경기를 먼저 마쳤고, 김세영과 그린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하면서 세 선수의 연장전이 성사됐다. 김세영과 임진희는 18번 홀 연장에서 모두 파에 그쳤지만, 그린은 공격적으로 코스 공략에 나선 뒤 긴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다. 대회 우승 상금은 71만2500달러(약 10억5000만 원)다.

이날 김세영은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합해 2언더파 70타를 쳤고,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그린, 임진희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승부는 18번 홀(파4)에서 펼쳐진 연장전에서 갈렸다. 김세영과 임진희와 나란히 파를 기록했지만, 그린은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3라운드에서도 2위권을 큰 격차로 앞서다가 막판 4연속 보기를 범하며 추격을 허용했는데, 이날도 뒷심 문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0월 BMW 레디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6개월 만의 우승 도전은

1번 홀(파5)에서 버디로 기본 총계 출발한 김세영은 6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8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전반을 1언더파로 마쳤다.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치던 김세영은 11번 홀(파5)에서 이글을 뉘으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김세영의 세 번째 침 샷은 홀 10m밖에 멈추는 듯했으나 경사를 타고 데굴 데굴 굴러 홀 안에 들어가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김세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흐름이 흔들렸다. 12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한 김세영은 15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으며 만회

다 음 기 회 로 미뤄졌다. 윤 이 나 는 최 종 합 계 16언더파 272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LPGA 투어에 입성한 윤 이 나 가 '톱5'에 오른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